

# 사회적 배척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도구적 정서조절<sup>†</sup>

정수진	임종민	곽호완	장문선 <sup>‡</sup>	이종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도구적 동기로 유발된 대인관계적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 그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대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PAI-BOR 척도를 실시한 후, 경계선 경향군 집단(50명)과 통제집단(50명)을 선발하여 실험 참가자 간 공을 주고 받는 게임인 Cyberball(Ball tossing game)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참가자에게는 공이 가지 않도록 설계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참가자의 소외감을 유발하였고 실험 전후로 정서경험척도를 사용하여 게임시행에 따른 정서변화를 측정하였다. 이후 같은 게임에서 총 4명의 참가자를 두 명씩 짝지어 팀을 나누고 참가자의 파트너가 공을 받아내는 정도에 따라 자신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주어지는 상황을 부여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파트너에게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싶은 각 정서(부정, 중립)의 강도와 정서의 유용성을 측정하여 도구적 정서조절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배척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유발된 소외감 정도가 더 높았으며, 파트너에게 제시하는 부정정서의 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수용 상황의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과 통제집단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수용상황에 비해 배척상황에서 부정정서의 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서 유용성에서는 배척상황의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이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상황적 맥락에 맞는 정서를 활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부정정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경계선 성격장애,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적 정서조절, 도구적 정서조절, Cyberball

<sup>†</sup>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문선,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053-950-5247, Email: moonsun@knu.ac.kr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는 정서, 인지과정, 행동, 자아상, 대인관계와 같은 기능의 불안정성과 충동성이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이다(APA, 2013). 이 중에서도 Linehan(1993)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BPD의 주된 특징으로 보았고, BPD의 심리적 불안정성과 충동성이 정서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BPD의 정서조절곤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속성으로(McGlashan et al., 2005), BPD 환자에게 관찰되는 자기 파괴적 행동, 정체성 혼란,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잘 예측하였으며(Tragesser, Solhan, Schwartz-Mette, & Trull, 2007),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Tragesser & Robinson, 2009).

BPD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무시, 거절 및 따돌림이나 사회적 승인, 인정 및 소속감과 같은 욕구가 무시당했을 때 강렬한 부정정서를 경험한다(Berenson, Downey, Rafaeli, Coifman, & Paquin, 2011; Sadikaj, Russell, Moskowitz, & Paris, 2010). BPD가 경험한 부정정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고독감과 타인에 대한 경멸, 분개, 분노와 같은 정서로 표현되었고(Staebler et al., 2011), 자신과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Stepp et al., 2014)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는 면에서 정서조절곤란을 시사한다(Levine, Marziali, & Hood, 1997). Chapman, Walters와 Gordon(2014)의 연구에서 경계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학문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보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부정정서 증가를 나타내었다. Herr,

Rosenthal, Geiger와 Erikson (2013)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과 BPD 증상의 심각도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정서조절곤란이 사회적 상황에서 발현함에 따라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에서도 거절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 변인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희정, 2014).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정서조절곤란은 BPD의 주된 특징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조절능력을 대인관계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서조절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서조절에 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과 정의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전해왔다. Gross(2002)는 정서조절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정서조절의 초기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쾌락적 동기로 유발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적 맥락이 정서조절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역쾌락적 정서조절 혹은 도구적 정서조절 개념이 대두되었다. 도구적 정서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성을 지니고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과정을 말하며(Bonanno, 2001; Tamir, 2009), 이후 많은 연구에서 정서조절이 반드시 누군가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 활성화가 정서조절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Campos, Walle, Dahl, & Main, 2011; Gross, Sheppes, & Urry, 2011; Thompson, 2011).

이렇듯 발전되어온 정서조절은 방향성에 따라 개인내적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적 정서조절로 다른 관점에서 범주화되었다(Gross & Thompson, 2007; Zaki & Williams, 2013). 개인내적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경험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과정이며, 대인관계적 정서조절은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Campos, Campos, & Barrett, 1989; Gross & Thompson, 2007). 개인의 정서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 또한 정서조절은 종종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Butler & Randall, 2013), 의식적이고(Niven, Totterdell, & Holman, 2009),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Parkinson, 2011) 통제된 사람이나 통제하는 사람,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Lakey & Orehek, 2011; Niven, Totterdell, holman, & Headley, 2012). 정서조절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내적 정서조절이나 대인관계적 정서조절은 사회적 관계에서 필수적이며, 관계에 이득이 되는 방향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대인관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amir(2011)는 정서에 대한 가정을 잠재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관점에 따라 발전되어온 다양한 정서조절 개념이 더욱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Netzer, Van Kleef와 Tamir(2015)의 연구에서 두 기준으로 범주화된 정서조절 중 도구적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적 정서조절의 개념을 통합한 대인관계에서의 도구적 정서조절(interpersonal instrumental emotion regulation:

이하 IIER)을 제시하였다. IIER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목표의 활성화를 위해 타인의 정서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한 개인이 목표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면,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정서 또한 조절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 과정은 상황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IIER을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Netzer et al., 2015). 실험 참가자와 게임을 수행하는 두 사람이 쌍을 이루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실험 참가자의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는 상황일 때, 실험 참가자가 게임을 수행하는 팀원에게 부정정서를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팀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IER을 측정하였다고 보았다.

IIER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경험했으면 하는 정서를 피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의도 및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BPD의 IIER을 평가함으로써 정서조절 능력에 따라 BPD에서 관찰되는 대인관계 문제와의 연관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BPD의 정서조절곤란이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나타나며,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BPD의 IIER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실제 사회적 장면과 유사한 대인관계를 설정한 실험연구는 BPD의 기준이 되는 행동(적대감/분노)을 유발하는 대인관계 상황의 경험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BPD의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두 변인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Euler et al., 2019),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 문제로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실험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Netzer 등(2015)의 연구에서 정의한 IIER을 본 연구에서의 정서조절로 정의하고 BPD의 정서조절 능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실험 중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정서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문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BPD경향군에서 부정정서를 더 경험할 것이다. 가설 (2) BPD경향군은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상황적 맥락에 맞는 정서를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즉, IIER이 정서조절의 한 측면임을 감안한다면, BPD는 통합된 개념의 정서조절에서도 한계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BPD의 단순한 정서조절능력의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BPD의 대인관계 문제와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BPD의 특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남녀 대학생 522명(남자 209명, 여자 313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를 실시하였다. BPD경향군에 대한 선행연구(이종환, 곽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에서 원점수를 기준으

로 상위 1.5SD이상에 해당하는 집단을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집단으로, 정상통제집단의 경우 하위 1SD이하로 분류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였을 때, PAI-BOR의 점수( $M=51.63$ ,  $SD=8.79$ )를 기준으로 평균으로부터 상위 1.5SD(65T)이상 집단을 BPD경향군으로( $n=50$ ), 하위 1SD(42T)이하 집단을 정상통제집단( $n=50$ )으로 선정하였다. PAI기준에서 65T 이상일 경우 유의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BPD경향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이 경계선적 성격 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가자 내 설계로 반복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일한 대상이 두 번의 시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연구목적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두 집단에서 선별된 인원 중 상황에 따라 배척상황(BPD경향군=25명, 통제군=25명)과 수용상황(BPD경향군=25명, 통제군=25명)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배척상황과 수용상황에서 동등한 비교 표본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짝짓기 방법을 통하여 PAI-BOR 점수가 비슷한 참가자들을 배치하였다.

### 측정도구

#### 질문지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이하 PAI-BOR). Morey(1991)가 개발한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는 객관적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11개 임상척도 중 하나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과 관련된 24문항을 0(전혀 그렇지 않다) - 3(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총 23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정서적 불안정성,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의 4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6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적 특징이 강한 것을 시사한다. 국내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원 점수가 39점 이상인 집단은 완전한 증후군으로 진단되기 전의 경계 범위에 해당하는 정신병리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홍상황, 김영환, 1998). 타당화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84였으며,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6 이었다.

**정서경험척도.** 본 연구에서는 Cyberball 실험 이후 피험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서경험척도(홍창희, 200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ANAS(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를 번안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홍창희(2004)가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 문항으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2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 문항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대학생의 경우 정적 정서, 부정 정서 각각 .88, .89로 나타났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3,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Cronbach's  $\alpha$ ) 각각 .92, .90으로 나타났다.

**정서강도 및 정서유용성의 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로부터 같은 팀의 파트너가 게임을 하는 동안 파트너에게 유발되었으면 하는 정서(부정, 중립)의 강도 및 유용성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서 강도를 나타내는 1(자극이 거의 없는) - 7(자극이 매우 강한)의 7점 척도와 유용성을 나타내는 1(도움이 되지 않는다) - 7(도움이 된다)의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실험 자극 및 실험 과제

선행연구에 따르면(Netzer et al., 2015) IIER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1) 의도하는 기능과 목적이 있으며 2) 관찰 가능한 행동과 말을 사용하여 3) 정서조절 대상에게 해석과 효과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컴퓨터 게임(Soldier of Fortune)에 적용하여 두 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의 참가자의 수행에 따라 다른 참가자의 보상이 달라지도록 규칙을 설정하고, 파트너의 수행을 위해 유발하고 싶은 정서의 강도와 그 정서가 게임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유용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Cyberball과 정서조절 패러다임을 결합하여 사회적 배척상황이 부여된 Cyberball을 수행하게 하고, 선행연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사회적 배척상황에서의 정서조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yberball.**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척 경험을 제공하고 대인관계적 도구적 정서조절에서 측정하는 정서유발 강도와 정서의 유용성에 관한 7점 리커트 척도를 평정하도록 하기 위한 실험적 조작으로, Williams, Teager, Cheung과 Choi(2016)가 개발한 cyberball 5.4.0.2 version을 사용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BPD환자를 대상으로 Cyberball (ball tossing game)을 활용하여 소외감을 유발하도록 하였으며, 공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평가하였다(Domsalla et al., 2013; Renneberg et al., 2012). Cyberball은 연구자가 사회적 배척상황을 실험장면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배척이 일어난다. 연구자는 제공되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자신의 연구 내용에 적합하도록 참가자 인원, 공을 던지는 횟수, 공을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Soldier of Fortune의 상황과 유사하게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해, Cyberball의 가상에서 피험자와 한 편이 되는 파트너 한 명과 상대팀 두 명으로 설정하여 총 네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게임의 규칙으로 공을 받는 파트너의 수행에 따라 상금을 탈 확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게임을 수행할 때, 15%의 확률로 공을 놓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 시행 안에 참가자들이 주고받는 횟수는 50번이며, 공을 던지는 시간은 1-3 초 내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수용 조건에서 참가자는 게임에 참여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한 비율(약 25%)로 공을 받게 된다. 반면,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참가자는 게임 초반 5차례의 공을 받은 이후 공을 받지 못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때 연구 참가자를 제외한 세 명의 게임 참가자는 가상의 인물로, 마치 온라인상에서 실제 인물이 수행하는 것처럼 설계되었으나 사실은 참가자 홀로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Cyberball 게임을 이용한 사회적 배척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Williams(2002)의 연구에서 조작점검 질문으로 쓰인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사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게임을 하는 동안 무시당한, 소외당한 기분이었는지 1점(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 - 5점(매우 많이 그런 기분이었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주고받는 공의 총 횟수 중 자신이 받은 횟수의 비율을 추정하여 기입하는 방식의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을 제외한 두 가지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6 이었다.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IAPS 자극은 실험실 연구에서 정서유발자극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자극으로 외국(Delplanque, N'diave, Scherer, & Grandjean, 2007)뿐만 아니라 국내(석현정, 정상훈, 박종민, 박진영, 정은빛, 2007)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자료이다. 총 956장의 컬러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IAPS 자극들은 십여 년간 미국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쾌(Pleasure), 각성(Arousal), 지배(Dominance)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평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Lang,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서가와 각성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자극을 선정하였다. IAPS 자극의 한국인 기준(박태진, 박선희, 2009)의 정서가 평정결과를 바

탕으로 부정(정서가 4.5이하), 중립(정서가 4.5-5.5)의 범주마다 각각 3개씩 자극을 선정하여 각 자극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절차**

먼저,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Cyberball 게임 시행 전 정서경험척도를 평정하도록 하여 게임 이후 변화된 정서와 비교할 기준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Cyberball 게임으로 사회적 배척 상황을 경험한 후 다시 한 번 정서경험척도를 평정하여 게임 전후의 정서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연결되어 게임이 진행됨을 설명하고 간단히 게임 조작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 게임의 목적은 심상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게임 상황에 최대한 몰입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려 게임에 참여할 때 최대한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상상하도록 지시하였

다. 이 방법은 해당 게임을 개발한 원저자(Williams et al., 2016)가 제시한 게임 목적으로 실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였다. 총 3번의 시행 중 사회적 수용 조건인 첫 번째 시행에서는 네 사람이 공을 주고 받는 연습시행이며, 이는 이후에 있을 사회적 배척 조건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때, 참가자는 25%정도의 확률로 공을 받게 된다. 사회적 배척 조건인 두 번째 게임에서는 네 사람이 두 명씩 팀을 이루어 공을 주고받게 될 것이며, 자신이 친밀하다고 느끼지는 사람의 캐릭터를 클릭하여 공을 던지게 한다. 공을 받을 확률은 10%이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yberball과 대인관계적 도구적 정서조절 패러다임을 결합하여 Cyberball에서 부여한 규칙에서 대인관계적 도구적 정서조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안내된 세 번째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전 시행과 같이 자신을 포함한 네 사람이 두 사람씩 팀을 이루어 공을 주고받게 될 것이며, 공을 놓치게 되면 탈락하는 게임입니다. 각 사람이 공을 놓칠 확률을 15%이며, 공을 놓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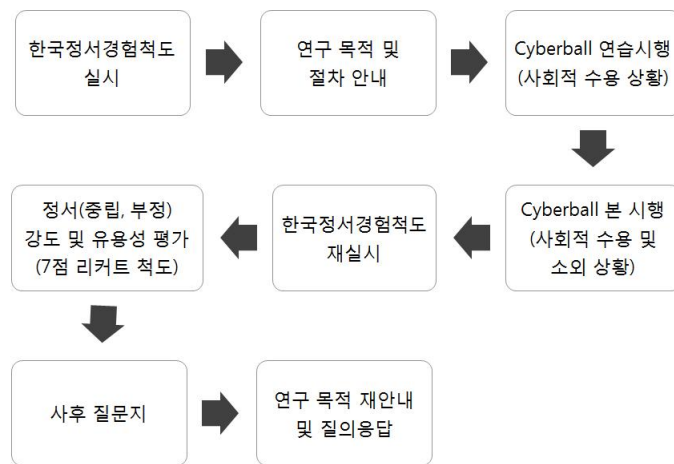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절차 순서도

게 되면 그 사람은 탈락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계속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속한 팀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이긴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참가자에게는 공이 오지 않으며, 파트너가 공을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에 따라 상금을 얻을 확률은 달라집니다. 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사람에게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입니다. 마지막 시행 전 파트너에게 보여줄 강도를 선택한 뒤 자신이 부여한 정서가 게임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유용성을 평가해주세요.' 이후 세 번째 게임을 수행하기 이전에 실험 참가자에게 IAPS의 부정 및 중립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제시하고 같은 팀의 파트너에게 보여줄 자극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부정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 강도와 자신이 제시한 정서 강도의 유용성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여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중립 정서 또한 같은 방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파트너의 수행이 좋을수록 상금을 획득할 확률은 증가하게 된다.

## 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Cyberball 게임을 활용한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질문지를 활용하여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외경험 전후 측정된 정서강도 및 유용성에 대한 실험설계는 집단 2(BPD경향군, 통제집단) × 상황 2(배척상황, 수용상황) × 정서 2(부정정서, 중립정서) 혼합설계

로, 참가자간 변수로 집단과 상황을, 피험자 내 변수로 정서를 설정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연구 집단의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분석에서 사용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평균 연령은 배척상황과 수용상황에서 각각 20.16( $SD=1.80$ )세, 20.08( $SD=1.47$ )세로 상황조건 간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t(48)=.172$ , ns, 통제집단의 평균 연령 각각 20.16( $SD=1.99$ )세, 20.84( $SD=1.86$ )세로 상황조건 간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48)=-1.246$ , ns. 배척상황에서 경계선 성향집단 25명(남 8명, 여자 17명), 통제집단 25명(남자 8명, 여자 17명), 수용상황에서 경계선 성향집단 25명(남 11명, 여자 14명), 통제집단 25명(남자 7명, 여자 18명)으로 성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3)=1.604$ , ns. 배척상황과 수용상황에 할당된 경계선 경향군의 PAI-BOR 평균점수는 각각 69.92T( $SD=4.0$ ), 69.09T( $SD=3.5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t(48)=.437$ , ns, 통제집단은 37.44T( $SD=2.89$ ), 38.68T( $SD=2.2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48)=0.99$ , ns.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PAI-BOR척도의 평균 점수를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경계선 성향집단		통제집단	
	배척상황 ( <i>n</i> =25)	수용상황 ( <i>n</i> =25)	배척상황 ( <i>n</i> =25)	수용상황 ( <i>n</i> =25)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연령	20.16(1.80)	20.08(1.47)	20.16(1.99)	20.84(1.86)
PAI-BOR	68.92T(4.00)	68.08T(3.57)	37.44T(2.89)	38.68T(2.29)

**사회적 배척 및 사회적 수용상황 조작에 대한 상황, 집단 별 비교**

사회적 배척 및 수용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Williams(2002)의 사후 설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무시 문항에서는 집단,  $F(1,96)=6.30, p<.05$ , 및 상황의 주효과,  $F(1,96)=50.03, p<.001$ , 가 나타났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통제군보다 BPD경향군에서, 수용상황보다는 배척상황에서 더 많이 보고 하였다. 소외감 문항에서는 집단,  $F(1,96)=16.98, p<.001$ , 및 상황의 주효과,  $F(1,96)=75.67, p<.001$ , 와 집단×상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96)=5.240, p<.05$ .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용 상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을 받은 확률에서는 집단의 주효과,  $F(1,96)=8.31, p<.05$ , 와 상황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96)=114.82, p<.001$ . BPD경향군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공을 받을 확률을 낮게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감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사회적 배척에 따른 긍정, 부정정서의 BPD경향군과 통제집단 간 비교**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의 정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처치 전후로 측정된 긍정, 부정정서점수의

표 2. Cyberball 게임 후 사후 질문지의 평균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배척상황	수용상황	'집단'	'상황'	'집단'×'상황'
		<i>M</i> ( <i>SD</i> )	<i>M</i> ( <i>SD</i> )	<i>df</i> <sub>1</sub> =1 <i>df</i> <sub>2</sub> =96	<i>df</i> <sub>1</sub> =1 <i>df</i> <sub>2</sub> =96	<i>df</i> <sub>1</sub> =1 <i>df</i> <sub>2</sub> =96
무시	BPD	3.48(.71)	1.96(1.02)	F=6.30*	F=50.03***	F=2.551
	통제	2.76(.93)	1.80(.82)	P=.014 $\eta^2_{\text{partial}}=.062$	P<0.001 $\eta^2_{\text{partial}}=.343$	P=.114 $\eta^2_{\text{partial}}=.026$
소외감	BPD	3.92(.49)	2.00(1.16)	F=16.98***	F=75.67***	F=5.240*
	통제	2.80(.91)	1.68(.80)	P<0.001 $\eta^2_{\text{partial}}=.15$	P<0.001 $\eta^2_{\text{partial}}=.44$	P=.024 $\eta^2_{\text{partial}}=.052$
공을 받은 확률(%)	BPD	10.40(3.25)	22.68(5.88)	F=8.31*	F=114.82***	F=.174
	통제	14.04(4.29)	25.40(7.63)	P=.005 $\eta^2_{\text{partial}}=.08$	P<0.001 $\eta^2_{\text{partial}}=.55$	P=.678 $\eta^2_{\text{partial}}=.002$

\*  $p<.05$ , \*\*\*  $p<.001$ .

합과 두 점수 간 차이[게임 후 점수-게임 전 점수]를 표3에 제시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부정정서 문항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긍정정서에 대한 차이는 집단 간, 상황 간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정정서는 상황의 주효과,  $F(1,96)=26.585$ ,  $p<.001$ , 및 집단 $\times$ 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F(1,96)=4.148$ ,  $p<.05$ .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의 부정정서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BPD경향군의 부정정서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통제집단이 경험한 부정정서에 비해 BPD경향군이 부정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른 정서 강도에 대한 BPD경향군과 통제군의 비교**

각 집단과 상황에 따른 정서 강도와 정서 유용성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먼저 집단(BPD경향군, 통제집단), 상황(배척 상황, 수용상황), 정서유형의 강도(부정정서, 중립정서)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유형의 주효과,  $F(1, 96)=26.691$ ,  $p<.001$ ,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집단과 정서유형의 상호작용,  $F(1, 96)=7.852$ ,  $p<.05$ , 상황에 따른 집단과 정서유형의 상호작용,  $F(1, 96)=7.852$ ,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앞서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표 3. 현재정서경험척도 긍정, 부정정서 문항 점수의 합과 차이값

		경계선 성향집단 ( <i>n</i> =50)		통제집단 ( <i>n</i> =50)	
		배척상황 ( <i>n</i> =25)	수용상황 ( <i>n</i> =25)	배척상황 ( <i>n</i> =25)	수용상황 ( <i>n</i> =25)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긍정	게임 전	25.04(7.37)	30.14(9.59)	32.16(7.56)	33.04(7.62)
	게임 후	21.00(7.35)	27.32(10.61)	26.88(9.01)	29.88(8.20)
	차이값	-4.04(7.37)	-2.84(8.33)	-5.28(7.87)	-3.16(6.74)
부정	게임 전	16.08(6.51)	15.76(6.57)	12.56(3.60)	14.52(5.11)
	게임 후	22.60(8.84)	14.44(4.61)	14.84(4.30)	13.92(3.66)
	차이값	6.52(6.46)	-1.32(6.64)	2.28(4.25)	-1.12(3.86)

표 4. 부정정서 문항 점수 차이값에 대한 분산분석

분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i>F</i>	$\eta^2_{\text{partial}}$
집단(A)	102.010	1	102.010	3.434	.035
상황(B)	789.610	1	789.610	26.585***	.217
A*B	123.210	1	123.210	4.148*	.041
S/AB	2851.360	96	29.702		

\* $p<.05$ , \*\*\* $p<.001$ .

표 5. 정서의 유인가에 따른 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경계선 성향집단 ( <i>n</i> =50)		통제집단 ( <i>n</i> =50)	
	배척상황 ( <i>n</i> =25)	수용상황 ( <i>n</i> =25)	배척상황 ( <i>n</i> =25)	수용상황 ( <i>n</i> =25)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부정정서강도	3.68(1.73)	2.60(1.63)	2.24(1.48)	2.32(.80)
부정정서유용성	4.16(1.65)	5.08(1.41)	5.40(1.35)	5.04(1.31)
중립정서강도	3.52(2.00)	3.84(1.82)	4.36(1.71)	3.84(1.28)
중립정서유용성	4.36(1.89)	4.72(1.72)	5.20(1.08)	4.80(1.26)

표 6. 정서강도에서 평균 점수에 대한 집단, 시기, 정서유형의 분산분석

	SS	<i>df</i>	MS	<i>F</i>	<i>n</i> <sup>2</sup> <sub>partial</sub>
집단(A)	1.210	1	1.210	.977	.010
상황(B)	2.250	1	2.250	1.817	.019
A*B	.160	1	.160	.129	.001
S/AB	118.880	96	1.238		
정서유형(C)	69.620	1	69.620	26.691*	.218
A*C	20.480	1	20.480	7.852*	.076
B*C	2.000	1	2.000	.767	.008
A*B*C	12.500	1	12.500	4.792*	.048
CS/AB	250.400	96	2.608		

al: BPD, a2: 통제, b1: 배척상황, b2: 수용상황, c1: 부정정서, c2: 중립정서  
\**p*<.05.

나타난 삼원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상황조건, 정서유형의 단순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유형에 따른 집단과 상황조건에 대한 단순 일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96)=3.969, p<.05$ , 세부적으로는 부정정서에서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중립정서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른 집단과 정서유형의 단순 일차 상호작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48)=10.609, p<.05$ . 배척상황에서 집단과 정서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수용상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른 집단

과 정서의 상호작용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순일차 상호작용 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BPD경향군은 배척상황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정서의 강도가 더 높았으며,  $F(1,48)= 10.034, p<.05$ , BPD경향군 내에서도 수용상황에서 보다 배척상황의 부정정서 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48)=5.167, p<.05$ . 또한 배척상황에서 BPD경향군의 부정정서 강도와 중립정서 강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배척상황의 통제집단,  $F(1,24)=61.876, p<.001$ , 수용상황의 경계선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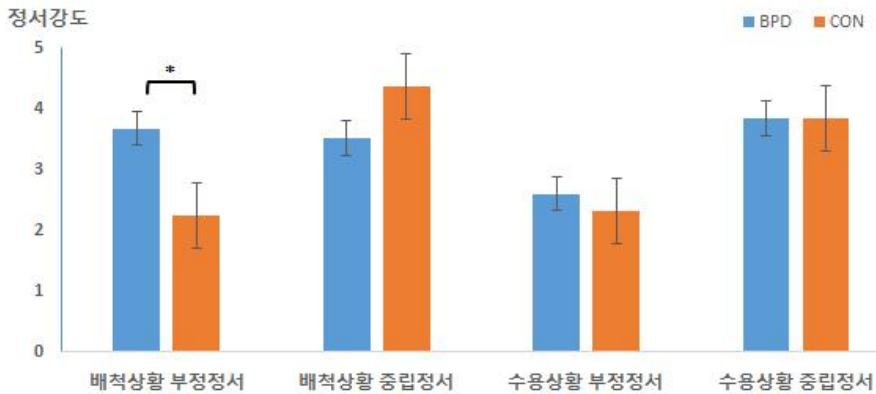


그림 2. 집단, 상황 및 정서 유형에 따른 정서 강도의 차이

$F(1,24)=12.222, p<.05$ , 과 통제집단,  $F(1,24)=52.538, p<.001$ , 모두에게서 부정정서의 강도와 중립정서의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집단에서 부정정서의 강도를 낮게, 중립정서의 강도를 높게 책정하여 활용하였으나 배척상황에서 BPD경향군은 상대적으로 부정정서의 강도를 높게, 중립정서의 강도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정서 유용성에 대한 BPD경향군과 통제군의 비교**

다음으로 집단(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 정상통제군), 상황조건(배척상황, 수용상황), 정서유용성(부정정서의 유용성, 중립정서의 유용성)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96)=6.016, p<.05$ , 집단과 상황의

표 7. 정서유용성에서 평균점수에 대한 집단, 시기, 정서유형의 분산분석

	SS	df	MS	F	$\eta^2_{partial}$
집단(A)	8.410	1	8.410	6.016*	.059
S/A	134.200	96	1.398		
상황(B)	.810	1	.810	.579	.006
A*B	7.840	1	7.840	5.608*	.055
S/AB	134.200	96	1.398		
정서유형(C)	.500	1	.500	.338	.004
A*C	.720	1	.720	.486	.005
B*C	2.000	1	2.000	1.351	.014
A*B*C	1.620	1	1.620	1.094	.011
CS/AB	142.160	96	1.481		

a1: BPD, a2: 통제, b1: 배척상황, b2: 수용상황, c1: 부정정서, c2: 중립정서  
\* $p<.05$ .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96)=5.608, p<.05$ .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과 정서유용성의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배척상황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F(1,48)=11.663, p<.05$ , BPD 경향군에 따른 상황조건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48)=4.140, p<.05$ . 즉, 배척상황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BPD 경향군은 자신이 부여한 정서강도가 상대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배척상황에서 집단에 따른 정서유용성의 측정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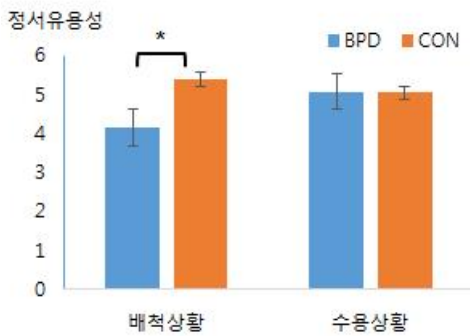


그림 3. 집단 및 상황에 따른 정서유용성의 차이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상황에서 BPD경향군이 경험하는 정서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IIER 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Cyberball을 사용하여 참가자에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회적 배척상황을 부여하였으며, IIER을 살펴보는 Netzer등(2015)의 패러다임을 Cyberball에 적용하여 BPD경향군의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척 및 수용상황 조작 점검을 위해 실시한 사후 설문지에서 무시, 소외감, 공을 받은 횟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BPD경향군에서 공을 받을 확률을 낮게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무시와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PD를 대상으로 Cyberball을 시행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Renneberg et al., 2012) BPD 경향군에서 실제 경험에 비해 자신에게 공이 오는 확률을 낮게 추정하며,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편향된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BPD경향군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통제집단에 비해 BPD는 사회적 거부 자극에 자동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을 보이며(Chapman et al., 2014; Limberg, Barnow, Freyberger, & Hamm, 2011), 사회적 거부 상황에서 더욱 강렬한 부정정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Berenson et al., 2011; Sadikaj et al., 2010)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사회적 배척경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게임 시행 전, 후에 측정된 정서경험척도의 긍정 정서에서는 집단, 상황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정서에서 상황에 따른 주효과와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게임 시행 전, 후에 따른 부정정서에 대한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BPD경향군이 통제 집단에 비해 게임 이후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와 첫 번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집단과 BPD경향군이 실제로 받은 공 횟수에

대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통제집단에 비해 BPD 경향군에서 더 높은 강도로 소외감과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도 상황에 따라 소외감을 경험하고 부정정서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에도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배척 경험 후에 통제집단이 경험하는 소외감, 부정정서에 비해 BPD경향군에서 더 강한 소외감과 부정정서를 경험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BPD의 개인내적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개인내적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경험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과정이다. 개인의 정서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려고 노력한다(Gross & Thompson, 2007). 하지만 Linehan(1993)의 생물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정서조절곤란은 BPD의 핵심적인 증상으로, 정서 자극에 대해 과도한 민감성을 보이며,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등 정서조절 능력에 결함을 나타낸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IIER을 평가하기 위해 정서(부정, 중립) 강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배척상황에 따른 집단과 정서 강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소외감을 경험할 때 BPD경향군이 통제군에 비해 정서의 두 유형 중 부정정서의 강도를 높게 제시하고 중립정서를 낮게 제시하여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용상황에서 두 집단 모두 중립정서의 강도를 높게, 부정정서의 강도를 낮게 측정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할 때,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경험한 소외감이 BPD경향군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

을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앞선 결과와 더불어 정서 유용성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배척상황에서 BPD경향군이 부정정서와 중립정서에서 각각 자신이 부여한 정서강도에 대하여 유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이 부여한 정서강도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즉, BPD경향군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여하고자 선택했던 그 정서를 통제집단에 비해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통제집단이 타인에게 부여할 낮은 강도의 부정정서와 높은 강도의 중립정서가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척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내적 정서를 조절하는 통제집단과 달리 BPD는 쉽게 무시, 소외감을 경험하며, 더 강렬한 부정정서를 경험하여 개인내적 정서조절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에 대한 결함을 보이는 BPD경향군은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강도의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자극과 낮은 강도의 중립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을 선택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부여한 부정정서와 중립정서를 상대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수용상황에서 BPD경향군에서 낮은 강도의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자극과 높은 강도의 중립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을 선택하였고, 이는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사회적 배척상황이 BPD경향군으로 하여금 부정정서를 경험하도록 하여 타인에게도 상황적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정정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IIER능력의 결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Niven등(201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적 정서조절이 한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BPD의 IIER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는 BPD의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Gunderson과 Lyons-Ruth(2008)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가 유기불안, 거부민감성,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사회적 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쉽게 지각하며,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다(Ayduk et al., 2008; Berenson et al., 2011; Meyer, Ajchenbrenner, & Bowles, 2005; Renneberg et al., 2012).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거절과 유기에 대한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취약성 기저에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점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정서조절곤란이다. Kim, Paers, Capaldi와 Owen(2009)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정서조절에서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질이 높았으며(Kim et al, 2009), 거절에 민감한 개인에게는 적개심과 갈등을 완화하는 요인이었다(Gyurak & Ayduk, 2008).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사회적 거절에 대한 부적응적 반응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척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설정하고

BPD의 정서조절 능력을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BPD경향군의 IIER능력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Netzer 등(2015)의 연구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발전되어온 정서조절의 다양한 개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에 따라 IIER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통합된 개념으로 BPD의 정서조절을 살펴본 첫 번째 실험 연구이다. 둘째,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을 지닌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조절곤란에 치료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치료적 함의를 지닌다. 홍수연, 이승연(2013)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효과적인 정서조절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을 지닌 개인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BPD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서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Linehan, Heard, & Armstrong, 1993), 정신화 기반치료(Mentalization-Based Treatment; Bateman, & Fonagy, 2004; Gunderson, Gratz, Neuhaus, & Smith, 2005), 전이중심치료(Transference Focused Psychotherapy; Clarkin, Levy, Lenzenweger, & Kenberg, 2004), 마음챙김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등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소개된 치료들은 BPD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조절곤란에 치료적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BPD의 증상에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PD경향군에서의 소외감 및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BPD의 정서조절곤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살펴본 Schmahl 등(2014)는 사회적 배척 상황에서 BPD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연결성이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의 연결성을 IIER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실험연구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Linehan(1993)이 제안한 정서조절곤란이 BPD의 다양한 증상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생물사회적 모델을 뒷받침하였으며,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결성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BPD경향군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배척상황에서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중립정서 강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험에서 경험하는 배척상황은 BPD 경향군이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소외를 경험하는 것보다 가상의 상황을 현실로 상상화하는 것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러한 제한된 집단에서의 표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성인 남녀 모두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다면 더 타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공을 받는 상황에서 낮은 부정정서와 높은 중립정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개인차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정서를 제시함으로써 게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은 부정정서 강도를 높게 제시할 수 있다. netzer 등(2015)의 연구에서 실험 이전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서를 일차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정서를 사전에 검증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상황에 유용한 정서를 실험 이전에 파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태진, 박선희 (2009). IAPS 자극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정서 평가. *인지과학*, 20(2), 183-195.
- 석현정, 정상훈, 박종민, 박진영, 정은빛 (2007). 그림 이미지의 색조 변화에 따른 감성적 반응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5), 229-238.
- 우희정 (2014).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환, 곽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정서조절 능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543-565.
- 홍상황,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8-271.
- 홍수연, 이승연 (2013).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003-3021
- 홍창희 (2004). 한국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 771-787(17쪽)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yduk, Ö., Zayas, V., Downey, G., Cole, A. B., Shoda, Y., & Mischel, W.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executive control: Joint predi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151-168.
- Bateman, A. W., & Fonagy, P. (2004).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1), 36-51.
- Berenson, K. R., Downey, G., Rafaeli, E., Coifman, K. G., & Paquin, N. L. (2011). The rejection - rage contingenc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3), 681-690.
- Bonanno, G. A. (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 (Eds.), *Emo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pp. 251 - 285).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utler, E. A., & Randall, A. K. (2013). Emotional coregulation in close relationships. *Emotion Review, 5*(2), 202-210.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
- Campos, J. J., Walle, E. A., Dahl, A., & Main, A. (2011). Reconceptualizing emotion regulation. *Emotion Review, 3*(1), 26-35.
- Chapman, A. L., Walters, K. N., & Gordon, K. L. D. (2014). Emotional reactivity to social rejection and negative evaluation among person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8*(5), 720-733.
- Clarkin, J. F., Levy, K. N., Lenzenweger, M. F., & Kernberg, O. F. (2004). The Personality Disorders Institute/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Research Foundation randomized control trial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rationale, methods, and pati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1), 52-72.
- Delplanque, S., N'diaye, K., Scherer, K., & Grandjean, D. (2007). Spatial frequencies or emotional effects?: A systematic measure of spatial frequencies for IAPS pictures by a discrete wavelet analysis.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s, 163*(1), 144-150.
- Domsalla, M., Koppe, G., Niedtfeld, I., Vollstädt-Klein, S., Schmahl, C., Bohus, M., & Lis, S. (2013). Cerebral processing of social rejection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8*(11), 1789-1797.
- Euler, S., Nolte, T., Constantinou, M., Griem, J., Montague, P. R., Fonagy, P., & Personality and Mood Disorders Research Network. (2019). Interpersonal Problem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ssociations with Mentalizing, Emotion Regulation, and Impuls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7*.
-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3), 281-291.
- Gross, J. J., & Thompson, R. A. (2007). Emotion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s. In J.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Gross, J. J., Sheppes, G., & Urry, H. L. (2011). Cognition and emotion lecture at the 2010 SPSP Emotion Preconference: Emotion generation and emotion regulation: A distinction we should make (carefully). *Cognition & Emotion, 25*(5), 765-781.
- Gunderson, J. G., & Lyons-Ruth, K. (2008). BPD's interpersonal hypersensitivity phenotype: A gene-environment-developmental model. *Journal*

- of *Personality Disorders*, 22(1), 22-41.
- Gunderson, J. G., Gratz, K. L., Neuhaus, E. C., & Smith, G. W. (2005). Levels of care in treatment. *Th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239-256.
- Gyurak, A., & Ayduk, Ö. (2008). Resting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buffers against rejection sensitivity via emotion control. *Emotion*, 8(4), 458-467.
- Herr, N. R., Rosenthal, M. Z., Geiger, P. J., & Erikson, K. (2013). Difficulties with emotion regul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 seve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7(3), 191-202.
- Kim, H. K., Pears, K. C., Capaldi, D. M., & Owen, L. D. (2009).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omantic relationship confli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585-595.
- Lak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2-495.
- Lang, P. J. (2008).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Affective ratings of pictures and instruction manual.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 Technical report A-8.
- Levine, D., Marziali, E., & Hood, J. (1997).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4), 240-246.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nehan, M. M., Heard, H. L., & Armstrong, H. E. (1993). Naturalistic follow-up of a behavioral treatment for chronically parasuicidal borderline 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1-974.
- Limberg, A., Barnow, S., Freyberger, H. J., & Hamm, A. O. (2011). Emotional vulnerabil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s cue specific and modulated by traumatization. *Biological Psychiatry*, 69(6), 574-582.
- McGlashan, T. H., Grilo, C. M., Sanislow, C. A., Ralevski, E., Morey, L. C., Gunderson, J. G., Skodol, A. E., Shea, M. T., Zanarini, M. C., Bender, D., & Stout, R. L. (2005). Two-year prevalence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SM-IV criteria for schizotypal, borderline, avoidant, and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s: toward a hybrid model of axis II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5), 883-889.
- Meyer, B., Ajchenbrenner, M., & Bowles, D. P. (2005). Sensory sensitivity, attachment experiences, and rejection responses among adults with borderline and avoidant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6), 641-658.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etzer, L., Van Kleef, G. A., & Tamir, M. (2015). Interpersonal instrumental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 124-135.
- Niven, K., Totterdell, P., & Holman, D. (2009). A classification of controlled interpersonal affect regulation strategies. *Emotion*, 9(4), 498.
- Niven, K., Totterdell, P., Holman, D., & Headley, T. (2012). Does regulating others' feelings influence people's own aff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2), 246-260.
- Parkinson, B. (2011). Interpersonal emotion transfer: Contagion and social appraisal.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7), 428-439.

- Renneberg, B., Herm, K., Hahn, A., Staebler, K., Lammers, C. H., & Roepke, S. (2012). Perception of social particip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6), 473-480.
- Sadikaj, G., Russell, J. J., Moskowitz, D. S., & Paris, J. (2010). Affect dysregulation i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istence and interpersonal trigg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6), 490-500.
- Schmahl, C., Herpertz, S. C., Bertsch, K., Ende, G., Flor, H., Kirsch, P., ... & Spanagel, R. (2014). Mechanisms of disturbed emotion processing and social interac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tate of knowledge and research agenda of the German Clinical Research Uni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1*(1), 3-17.
- Staebler, K., Renneberg, B., Stopsack, M., Fiedler, P., Weiler, M., & Roepke, S. (2011). Facial emotional expression in reaction to social exclu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29-1938.
- Stepp, S. D., Scott, L. N., Morse, J. Q., Nolf, K. A., Hallquist, M. N., & Pilkonis, P. A. (2014). Emotion dysregulation as a maintenance factor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Comprehensive Psychiatry, 53*(3), 657-666.
- Tamir, M. (2009). What do people want to feel and why? Pleasure and utility in emotion regul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2), 101-105.
- Tamir, M. (2011). The matur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Emotion Review, 3*(1), 3-7.
- Thompson, R. A. (2011).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Two sides of the developing coin. *Emotion Review, 3*(1), 53-61.
- Tragesser, S. L., & Robinson, R. J. (2009). The role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UPPS impuls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4), 370-383.
- Tragesser, S. L., Solhan, M., Schwartz-Mette, R., & Trull, T. J. (2007). The role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predicting future BPD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6), 603-614.
- Williams, K. D. (2002).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 K., Teager, D., Cheung, C., & Choi, W. (2016). Cyberball (version 5.2.9)[Software]. Retrieved April 21st, 2016.
- Zaki, J., & Williams, W. C. (2013). Interpersonal emotion regulation. *Emotion, 13*(5), 803-810.

원고접수일: 2018년 12월 19일

논문심사일: 2019년 1월 5일

게재결정일: 2019년 7월 2일

# Interpersonal Instrumental Emotion Regulation of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in a Social Situation

Su-Jin Jeong<sup>1)</sup> Jong-Min Lim<sup>1)</sup> Ho-Wan Kwak<sup>1)</sup> Mun-Seon Chang<sup>1)</sup> Jong-Hwan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and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at the social exclusion situation influence interpersonal emotion regulation induced by instrumental motiv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to confirm their characteristics. Th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 $n=50$ ) and the control group( $n=50$ ) were selected among 520 students based on scores on the PAI-BOR scale. Two groups played the game called Cyberball(Virtual Ball Tossing Game), a game in which a ball is passed between four people in the experiment. The game is designed so that participants cannot receive a ball, so as to arouse their sense of isolation. We asked them to evaluate their emotions by using the Emotional Experience Scale before and after the game and measured their emotional changes. Then, when people were teamed with two individuals each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receive a monetar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times their partner received the ball, the participant evaluated interpersonal instrumental emotion regulation by selecting the intensity of each emotion(negative, neutral) and value of the emotion they wanted to induce to their partner.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groups, th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 in the exclusion situation experienced more of a sense of isolation, and selected significantly higher intensity of the negative emotion presented to their partner.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control) in the inclusion situation. In terms of value of the emotions, th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 in the exclusion situation evaluated significantly lower than control group. As a result, these findings suggest interpersonal instrumental emotion dysregulation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 in a social exclusion situation, which can lead to interpersonal dysfunctions by using inappropriate emotion.

*Keyword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motion dysregulation, interpersonal emotion regulation, instrumental emotion regulation, Cyberball